

# 3월 한·일전 축구 무산

### 서로 홈개최 고집하다 합의 못해 “경기력보다 흥행 싸움” 비난도

3월24일로 잡혀 있던 축구 국가대표팀 한·일전이 서로 홈개최를 요구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축구협회의 첨예한 대립 끝에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연초 한·일전이 한국 축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됐다’는 다지마 고조 일본축구협회(JFA) 전무의 발언에 대해 “주요 쟁점은 경기 장소였다. 일본은 요코하마 경기장까지 잡아놓고 무조건 홈개최를 요구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개최를 먼저 고집하다 결국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팀 한·일전은 월드컵축구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흥행장이다.

일본은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결승전을 치른 7만2천명 수용 규모의 요코하마 국제종합경기장(닛산스타디움)을 경

기 장소로 잡아놓고 마케팅 작업까지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비차 오심 일본대표팀 감독은 이 경기에 나카무라 슌스케(셀틱), 다카하라 나오히로(프랑크푸르트) 등 해외파를 처음 소집해 한국과 맞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러나 일본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빅카드를 국내에 먼저 유치하겠다는 마케팅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봄, 가을에 한 번씩 하자는 얘기와 올해 한 번, 내년엔 한 번 더 하자는 등의 말이 오갔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 쪽에서 먼저 홈 경기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올해 7월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아시아권의 일본과 경기하는 것보다는 유럽, 남미, 북중미의 강호와 대결하는 게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한·일전 무산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경기력을 내다보는 해안보다는 양국의 ‘금전 주도권 싸움’이 먼저였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 스포츠 신문 ‘산케이스포츠’ 인터넷판은 도하아시아게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김 배어백 감독에 대한 경질론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배어백이 최대 라이벌 일본에 패할 경우 해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일전을 기피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위킴 원더러스의 조니 디슨(위)이 11일 영국 남부 하이 위킴의 애덤스파크에서 열린 영국 리그컵(칼링컵) 준결승전 1차전에서 공을 잡기 위해 첼시의 마이클 에시엔(아래 왼쪽)과 클로드 마켈렐(아래 오른쪽) 위로 달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전국체전의 해

(5) 경제적 효과

# 경제유발 4천억 예상 5천여명 고용효과도

“요즘만 같으면 정말 살 맛 난다니까. 날마다 체전이 열렸을 좋겠다”

지난 2006년 전국체전이 열린 일주일 동안 김천의 식당, 숙박, 유흥업소 주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이처럼 전국체전 개최 시·도는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인원 등 3만여명이 일주일간 체재하면서 지출하는 돈으로 인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2007년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 광주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전북대지방자치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약 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천2백54여여원의 생산유발 효과, 715여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광주 전국체육대회를 치른 후 다시 광주에 오는 관광객 유발효과는 9백68여여원이며 4천833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숙박비 25억여원, 식비 111억여원, 교통비 12억여원, 유흥비 42억여원, 농산물 4억여원, 음료 2억여원 등이다.

### ‘관광객 유치’ 968억원

특히 전국체전을 통해 지역의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해당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향상돼 장기적으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관광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부수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향상에 기여하고, 대규모 행사 진행에 따른 노후유 축적으로 향후 국내·외 행사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에 국내는 물론 해외거주 국민들까지 광주를 방문, 발전된 광주의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울산광역시 전국체전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963억여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2백89억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뒀다. 또한 3천5백68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거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문화수도 이미지 제고도

이처럼 수치화 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문화수도시 이미지 제고, 자원봉사 통한 시민화합, 국제대회 인프라 구축 등 무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4천억여원의 경제적 효과외에 고용증대, 빛고를 광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계 증대 등 체전 이후의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광주의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전 국민에게 생생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 12일(금)  
 ▲ATP테니스 쿠용 클래식 3일째(08:50·SBS스포츠)  
 ▲월드컵 서울국제제와인 스키대회(13:50·MBC)  
 ▲프로농구(SK-KCC)(18:50·Xports) 13일(토)  
 ▲PGA 소니 오픈 2R(09:00·SBS스포츠)

- ▲NBA(워싱턴-뉴올리언스)(10:00·MBC ESPN)  
 ▲ATP테니스 쿠용 클래식 결승전(12:20·SBS스포츠)  
 ▲프로농구(전자랜드-KT&G)(14:50·Xports)  
 ▲V-리그(삼성화재-대한항공)(13:30·KBSN Sports), (KT&G-GS칼텍스)(16:00·KBSN S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세계-삼성생명)(16:50·SBS스포츠, 17:00·MBC ESPN)

## 잉글랜드 4부리그팀 위킴

# 첼시와 무승부 ‘변방 반란’

### 칼링컵 준결승 1차전...1대1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리그II) 위킴 원더러스가 2006~2007 칼링컵(리그II)에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첼시와 비겨 ‘변방의 돌풍’을 일으켰다.

위킴은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위킴 애덤스파크에서 열린 칼링컵 준결승 1차전에서 전반 36분 첼시의 웨인 브리지가 선제골을 내렸으나 후반 32분 저메인 이스터가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 1-1로 비겼다.

잉글랜드 프로축구는 프리미어리그(1부), 챔피언십(2부), 리그 I (3부), 리그II(4부)로 나뉘어 있다.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는 첼시와 리그 II 6위 위킴의 순위 격차는 전체 리그를 다 뛰어넘고 보면 71계단이나 된다.

골값 차이는 더 엄청나다. 이날 원정에 나

선 첼시 선수들의 몸값은 천문학적 액수인 2억3천500만 파운드(4천273억원).

반면 위킴 선수단 전체 몸값은 8만 파운드(1억4천500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2천937배 차이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선 위킴은 전반 19분 이스터의 날카로운 크로스로 첼시 문전을 위협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첼시 몫이었다. 살로몬 칼무의 롱 패스를 받은 브리지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1만여 홈 팬들의 열렬한 성원을 등에 업은 위킴은 종료 13분을 남기고 이스터가 동점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슈팅 수 8대5, 볼 점유율 54%대46%로 첼시가 앞섰지만 위킴의 승리가 다름없는 한 판이었다. 위킴은 오는 24일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준결승 2차전을 벌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중 프로농구 올스타 확정

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과 30일 각각 개최되는 한국과 중국의 프로농구 올스타전 선수단을 확정,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창원 LG의 신선우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김승현(오리온스)과 양동근(모비스), 강혁(삼성), 우지원(모비스), 방성윤(SK), 피트 마이클(오리온스) 등 국내의 선수 15명이 대표로 나선다.

올해 3회째인 이번 대회에 서장훈(삼성)과 현주엽(LG), 이상민(KCC), 주희정(KT

&G), 양경민(동부)이 빠지는 대신 강혁과 김성철(KT&G), 우지원, 박지현(LG), 양희승(KT&G)이 자리를 채웠다.

다음은 한국 선수단 명단.  
 ▲감독=신선우(LG) ▲코치=안준호(삼성), 유재학(모비스) ▲선수=신기성(동부), 조상현(LG), 강혁(삼성), 김승현(오리온스), 박지현(LG), 양동근, 우지원(이상 모비스), 양희승(KT&G), 추승균(KCC), 김성철(KT&G), 김주성(동부), 방성윤(SK), 피트 마이클(오리온스), 자말 왓킨스(동부), 올루미데 오예데지(삼성)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온다가**  
**합동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로 시작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은행 기술은,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냉동보관해두었다가, 노화나 질병 발생 시 이를 동결해동해 세포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은행 기술은,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냉동보관해두었다가, 노화나 질병 발생 시 이를 동결해동해 세포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이 개발한 세포은행 기술은,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냉동보관해두었다가, 노화나 질병 발생 시 이를 동결해동해 세포를 주입하여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오래남기 나쁘고하는 공중청정기  
**편기회터의 명품 공기청정기**

오래남기 나쁘고하는 공중청정기  
**최적조절과 편기회터 일체 난방까지**

무등산업